

우리나라 중·소 섬유기업 활성화방안 연구

김문영¹⁾ · 임흥식²⁾

1) 계명대학교 패션학부 패션정보기획전공

2) 계명대학교 섬유·패션산업특화국제전문인력양성국책사업단

1. 서론

1970년대 이래로 중소기업은 국가 기반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Kim & Nugent, 1994). 이러한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젊은 벤처 기업 인들은 사업력과 창의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투명경영과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중소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규모가 큰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는 경제기반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다른 대규모 기업의 성장이나 지방자치정부 더 나아가 국가경제기반의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Hodgkinson(2000)은 특별히 아시아국가들의 정부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소기업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 생산 기술, 설비노후, 인력부족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항상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섬유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환율의 변동 및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수출시장에서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의 섬유관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섬유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살펴보고, 섬유관련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며,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활성화 정책에 따른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섬유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의와 역할

2.1.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 또는 사회·경제적·정치적 관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양

적기준과 질적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기준으로 본 중소기업은 종업원의 수, 자본액 또는 자산총액, 생산액, 매출액, 동력 사용량, 평균임금의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적기준을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종업원의 수, 자본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성광원, 1996).

이와 같이 국가별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양적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적기준은 각 나라의 경제사정 및 업종간 서로 다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획일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 수 500인 이하, 연간매출액 1억 DM이하의 기업규모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종업원 수 50인 미만, 네덜란드는 100인 미만, 일본은 300인 미만, 영국은 500인 미만, 미국은 500명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김선숙 등, 1999).

질적기준은 독점도, 집중도 또는 소유나 경영의 형태, 지역 의존도 및 사업분야에서의 상대적 비중 등 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사회, 경제, 정치적 과정 속에서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기업주 개인의 인적성향이 두드러진 기업경영, 의사결정 시 가족의 책임정도, 기업의 사활과 개인의 사활의 일치정도, 기업주와 종업원의 특별한 관계, 기업의 법적형태(인적회사)를 그 잣대로 두기도 한다(김선숙 등, 1999).

그러나 기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질적기준이란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순수한 독립 중소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은 2000년 12월 중소기업 기본법

Table 1. 국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제조업기준)

국 가	상시근로자 수	자산총액/자산총액/매출액
한 국	300인 미만	자산총액 200-800억원 이하
미 국	500인 미만	
일 본	300인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기업	자본금 1억엔 미만
대 만	200인 미만	자본금 NT\$6,000만 미만
싱 가 폴		자산 S\$15백만 미만
태 국		자산 200백만 바트 미만
인도네시아		자산 600 백만 루피아 미만
중 국		총자산 및 매출액이 각각 5억 위엔 미만
이스라엘	100인 미만	대기업의 지분이 10%이하인 기업
멕시코	31-500인 미만	연간 매출액 90만-2천만 페소 미만

자료: KOTRA, 1999.

시행령(대통령령 제17026호)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제조업 및 광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와 자산 총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것을,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기준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도록 하고, 또 동일 산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동일 산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중소기업 분류기준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2.2.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국가별 특징 및 국제화의 필요성

중소기업이 가지는 경제적인 중요성 및 산업내의 역할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경쟁요소로 소비자 수요에 대한 빠르게 적절한 대응, 용이한 산업구조개편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 자체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시장접근성과 다양

성, 유연성 및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장으로 중소기업을 활용하기도 하고,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되며, 협력파트너, 수출의 숨은 공로자,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에서 국민경제의 활력소로 경제,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고용 흡수력이 크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며 시장기능을 확대시킨다. 또한 균형 있는 소득분배의 촉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산층이 확대되고 정치, 사회적 안정의 기초가 되어 내실 있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중소기업체제가 대부분인 산업부품 제조기업의 성장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전문 생산업체를 통한 생산의 우회화를 가져와 산업능률을 제고시키며,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를 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산업구조 형성의 핵심요체가 될 뿐만 아니라 부품의 수출은 선진국과의 수평적인 경쟁

Table 2.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대표적 중소기업의 역할과 및 경영형태

연 도	경제발전단계 및 대표적 특징	주요역할	대표적 경영형태	경영의 초점
(I) 1970년대 초까지	초기공업화단계 (생업적중소기업)	• 생필품의 적기공급 • 생산력의 확충 • 고용증대	• 가족경영체제 • 주먹구구식 경영 • 연명형의 불안정한 경영	• 자금조달 • 시설확충능력제고 • 임기응변력발휘
(II) 1980년대 중반까지	경공업의 발전단계 (수출주력형중소기업의 등장)	• 수출로 외화획득 • 양산체제구축 • 외국제품모방	• 초보적 관리체제 도입 • 온정주의적 관리 • 해외시장관리체제 도입	• 능률증진 • 열성으로 성과 향상 • 해외거래선확보
(III) 1980년대 말까지	중화학공업의육성단계 (의존, 계열중소기업의 등장)	• 주문품의 적기공급 • 국내외시장개척 • 수입품대체	• 의존체제형성 • 생산성 능률향상 주력 • 제품기술의 모방과 도입	• 모기업과의 유대강화 • 합리적 방안강구 • 품질향상
(IV) 198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성숙단계 (전문, 독립형 중소기업의 등장)	• 국내외시장창조 • 신제품 및 기술의 개선 • 인력규합과 육성	• 동업체제의 구축 • 전문화추진 • 기술에 과감한 투자	• 경쟁우위의 확보 • 정보망의 구축 • 협력체제의 구축
(V) 2000년 이후				• 세계화 • Network화

자료 : 한국중소기업학회, 「21C중소기업의 진로」, (서울: 동화회, 2000), p. 90.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산업협력을 강화시켜 산업기술면에서의 국제분업과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서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면서도 수출증대를 가능케 하여 산업의 관련도 제고 및 고도화에 기여하게 한다.

또한 최근의 소비양태는 상품이 고급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제품 순환주기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양태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 체제보다는 소량 다품종생산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영위하기가 적합하며, 불황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산업의 경기 대응능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은 거의 완전경쟁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이나 새로운 디자인 등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아이디어 상품과 진문화된 부품을 중소기업이 기동성 있게 개발하여 상업화하는 것에 있어서 대기업 보다 훨씬 능률적이며 뛰어난 경쟁력을 갖는다. 이러한 제품개발의 경쟁력의 발전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3은 국가별 중소기업의 정책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Itoh와 Urata(1994)는 일본에 있어서 공·사적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술, 금융,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간의 경제교류가 확대됨과 동시에 경제블록화를 통한 규제의 양면이 상존하고 있는 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중요성이나

Table 4. 기업의 국제화 동기

요인별	국제화 동기
시장요인	• 동질적인 소비자 욕구 • 범세계적인 소비자 • 범세계적인 유통경로 • 이전 가능한 마케팅
원가요인	• 규모 및 범위의 경제 • 학습과 경험 • 원자재 조달의 효율성 • 유리한 물류 및 로지스틱스 • 국가마다 다른 비용과 기술 • 제품개발 비용
정부요인 (인위적 요인)	• 유리한 무역정책 • 양립 가능한 기술표준 • 일반적인 마케팅 규정/규제
경쟁요인	•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 • 범세계화된 경쟁자들

자료 : KOTRA, 1999.

역할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중소기업 역시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역시 국제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시도하여야 한다.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생산자원의 가격과 가용성의 차이, 성장기회의 활용, 국내시장의 포화, 신기술의 활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국제화의 동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섬유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초창기에는 소규모기업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1960년대를 거치고 1970년대 일본섬유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확장과 발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세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갔다. 60-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하여 80년대에 섬유산업분야

Table 3. 국가별 중소기업의 정책과 특징

국 가	특 징
미 국	• 고용정책에 초점/• 다양하고 풍부한 정책지원자금의 활용에 있어서 절차가 용이함/• 창업촉진, 경영능력 및 마케팅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수민족 및 여성 기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일 본	• 수출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원활한 교역활동 정책/다양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JETRO의 역할이 중요/• 새로운 중소기업형 인재육성정책(론펜시형인재육성제도, 목표관리제도) ¹⁾
이 태 리	• 유동성(Flexibility) 있는 기업구조와 지역 집적 네트워크 시스템/• 세계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최고(패션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 기업비율 97.6%)/• 특정 지역의 가족 중심적 전문적 기업 집중(최소 단위의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유연성 있는 전문기업으로 발달을 용이함. 양적 확대보다는 이익지향의 내실경영 중점) • 기업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차별화에 중점을 둔 디자인개발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급화 지향하여 이익 극대화에 노력/• 중소 전문 기업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로 연관되어 상호 보완 기능 및 지역중심의 집적화(프라토 지역의 모직물, 토스카나 지역의 피혁제조기업, 만토바의 스타킹 업체의 밀집 등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수평적인 복합 집합체를 형성함) • 지역 집중화 시스템의 강점(같은 지역 내에서의 인적 자원과 기술·시장 정보의 공유, 기업간의 교류의 용이, 상호 보완의 기능 등을 가지며 생산 기술과 지식의 축적, 시장 대처 능력의 강화)/•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최종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연구,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기술개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협력)
대 만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
싱 가 폴	•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최적의 환경제공
이스라엘	• 정부의 풍부한 지원정책에 의한 벤처산업 중심의 육성
기 타	•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지원의 태동기임. 자국정책에 부합된 정책의 도입시기

주1) 중소기업들은 이들 두 제도를 융합하여 단순한 능력주의가 아닌 성과주의에 근거한 자립형 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주2) 이태리는 섬유산업중심의 중소기업의 특징이고 기타 국가들은 섬유산업을 포함하는 중소제조업 전체의 특징을 나열한 것임.

자료 : KOTRA, 1999. 12.

Table 5. 제조업내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추이

구 분	1987년		1989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	57.3	39.4	60.9	45.0	65.8	47.6	69.1	49.2	69.2	47.2	70.5	48.0
소기업	24.5	13.0	29.6	17.0	35.4	19.9	39.4	21.9	40.6	21.9	41.4	20.7
중기업	32.8	26.5	31.3	28.0	30.4	27.7	29.7	27.3	28.6	25.3	29.1	27.3
섬유												
중소기업	59.1	45.0	61.1	53.0	67.4	61.4	76.2	74.1	79.7	76.0	84.2	79.5
소기업	25.4	15.4	29.1	21.0	33.7	25.5	40.4	33.3	44.0	35.7	47.0	37.1
중기업	33.7	29.6	32.1	32.0	33.7	36.0	35.8	40.7	35.7	40.3	37.2	42.4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의 중소기업은 여타 중소기업이 가지는 V자 패턴을 가지면서 성장하였다.

1961년 이래로 정부는 섬유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자금의 지원 등을 보조하기 위한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으며, 1962년에 고급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 검사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섬유조합 등의 설립(1965년)과 섬유산업 현대화 관련 법규(1979년)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1963년에 54,518명, 1973년에 90,000명으로, 1979년에는 170,871명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제조업분야의 고용비율이 5%를 약간 상회하였고, 부가가치제조업분야에서 3.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섬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3년에 중소기업 전체 비중에서 21.3%를 점유하였다. 이후 '91년까지 점유율은 60.6%(여타 중소기업 제조업전체 비율은 39.9%임)까지 증가하였다.

이것은 섬유산업 내에서 중소기업에 의존한 수출의 비중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1998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제조업전체에서 살펴볼 때 고용 및 부가가치비중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고용비율은 각각 41.4%, 29.1%를 차지하였으며, 부가가치비중 면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은 각각 20.7%, 27.3%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섬유산업의 경우는 고용 및 부가가치비중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고용비율이 각각 47.0%, 37.2%, 부가가치비중 면에서 각각 37.1%, 42.4%로 나타나고 있다(Table 5 참조).

그러나 현재는 Table 6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전체의 부가가치는 1987년 45%에서 1998년에는 약 80%까지 증가한 반면 섬유업종 전체의 부가가치는 1987년에 비해 1998년에 절반 수

준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3. 섬유관련 중소기업의 당면 문제점

우리나라는 섬유관련 중소기업 및 종사자의 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1. 기업경쟁 및 규모의 영세성, 제품경쟁력의 취약

기업경영에 있어 판매의, 자금확보, 생산성 등의 경영 및 재산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섬유패션산업은 제대로 확립된 경영노하우나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이다. 또한 기업자체가 상당히 영세하여 자체적인 기술개발이나 투자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섬유원료의 가격 상승 또한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환율의 급변이나 섬유원료의 가격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섬유기업들은 중저가 범용 화섬제품의 생산비중이 높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후발개발국들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디자인 중심의 소재 등의 제품개발 분야에서의 품질경쟁력 역시 일본, 이태리, 미국 등의 섬유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 중저가상품과 고가상품의 모든 수출시장에서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호주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환경에서의 어려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기구축된 네트워크의 극복 어려움, 국제적 비즈니스경영노하우의 부족 등과 같은 다수의 요인으로 인하여 외국시장으로의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수출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Table 6. 제조업내 섬유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연도	1987	1992	1996	1998	87-98
					전체변화율
섬유업종 전체	10.4	7.5	5.2	5.5	-4.9
중소기업 전체	45.0	61.4	76.0	79.5	34.5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Jayanthakumaran, 2000).

3.2. 취약한 재무구조와 만성적인 자금난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보다는 차입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997년 평균 부채비율이 418.4%에 달하여, 대기업의 부채비율 390.0%보다 높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에는 중소기업부채비율이 178.8%로 대기업의 198.0%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중소기업은 IMF 이후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은 담보물의 부족, 금융권에서의 중소기업 신용도에 대한 낮은 평가 등으로 인하여 금리 부담이 높은 사채시장의 이용 또는 계속되는 어음할인에 의한 자금의 악순환으로 인한 만성적인 자금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금융시스템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Pissarides(2000) 등은 러시아와 불가리아의 중소기업의 CEO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자금조달을 위하여 fall-back option 과 같은 내부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생산기술의 후진성, 설비의 과잉 및 노후화

섬유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취약한 재무구조와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부분에서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생산기술 개발과 설비노후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섬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있어 생산기술부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생산설비의 노후, 기업체 산성 중심의 경영체제, 생산기술난이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 섬유관련 기업의 경우 보유중인 직기의 대부분은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설비이며, 그에 다른 생산체제와 상품개발 체제를 갖고 있는데 반해, 시장에서의 섬유수요는 고급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대량생산체제의 시장경쟁력은, 적극적인 기술 도입과 값싼 노동력, 생산설비의 확장 등을 앞세운 후발개도국들의 추격으로 인해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정보화시대의 대응능력 부족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취약점은 신기술 및 신상품이 국경의 제약없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세계화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정보화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하여 중소형의 섬유업체들이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움으로써 기업의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동화 및 정보화 등을 위한 구조개선자금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한계기업의 퇴출 및 지식·기술집약적 분야에 구조고도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3.5.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도 친인척이나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여 내용적으로는 개인 기업인 경우가 많다. 개인 기업의 특징은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와 기업이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합리적인 경영기법의 도입이나 조직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주의 의사에 따라 기업이 운영되는 경영조직상 비합리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영환경하에서의 전문인력의 활용도는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우수인력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부분 임·가공 형태의 제조업 또는 생산성위주의 기업형태를 갖고 있기에 인력수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섬유산업의 경우는 현장 중심의 노동인력의 수급에서부터 수출을 위한 전문 영업인력의 수급까지 전반적으로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개인 기업의 성향이 강한 섬유패션업체의 구조 특성상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국 연수생제도에 의해 현장 생산인력의 수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할 지라도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위한 기획마케팅 전문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중소섬유기업의 경우 서울에 주재한 무역중개대리인(private trading agents)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에 무역중개대리인에 의존적 영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수입의 감소는 물론 독자적인 시장개척 활동의 제약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중소 섬유기업의 활동 역량은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제품의 고급화와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나타난다. 섬유패션산업의 선진국인 이태리의 경우는 디자인의 고급화와 기술개발 투자비용 뿐 만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투자비용을 상당히 지출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인재의 양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3.6. 생산구조적 문제

섬유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생산구조는 원사, 제직과 염색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기업간의 공정이 원청, 하청, 재하청 등의 피라미드구조를 형성하여 운영되는 연속적 단순과다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하청, 재하청업체의 경우 독창성은 전혀 없고 주도권을 지닌 원청업체가 원료의 공급, 제품판매, 제품종류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이러한 생산구조하에서 하청기업들은 단순히 시설에 의한 생산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전환이나 노력은 어

려워져 제품의 특화나 차별화 생산은 어렵게 된다(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01). 그 결과로 생산기술의 평준화를 유도하게 되며, 기술평준화는 모방과 복제품조를 반복하여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키고 도덕성의 왜해 및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게 되며, 과잉생산에 따른 만성적자를 만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4. 섬유산업관련 중소기업의 활성화 정책

대구·경북지역 섬유 패션관련산업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당기업의 노력이 수반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4.1.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공용상품개발 여건의 확대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의류용 직물의 생산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기능성이 강화된 산업용 섬유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용 직물의 경우, 고감성, 고기능성 소재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을 고급화하고 품종을 다양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유통판매,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선 실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예는 오스트리아, 일본 등 외국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여러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파일럿생산시설을 보유하여 연구개발의 노후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오사카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태리의 경우 비엘라 산지를 중심으로 연구도시가 설립되어 섬유, 의류, 섬유기계, 섬유화학 등과 관련된 기술이전, 교육,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희석 등, 2000).

4.2. 경영안정 정책제고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IMF지원체제 기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잦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경영안정 대책은 아직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가 섬유산업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구제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청 등의 공동 금융시스템의 운영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섬유산업관련 중소기업 등의 판매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조달 등의 납품에 있어 일정한 금액에 대하여 입찰자격

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구매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섬유산업의 중소기업 역시 부채의 비율이 일반 제조업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환금의 대출 연장조치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만기도래 대출금의 상환연장 및 유예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자금의 확충을 위해 공공재원확대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기적, 응급조치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품질, 기술향상, 경영여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금융산업의 국제화여건에 부합된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적용, 신용대출의 활성화와 보증확대 등의 자금 이용성의 원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 관련분야의 지원은 주로 정부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Ito와 Urata(1994)의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 기술적 지원, 금융적 지원, 마케팅 지원이 중점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4. 중소기업의 마케팅지원제도 및 공정경쟁관행의 정착

시장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해외시장개척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업체는 생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기획과 마케팅능력을 제고하고, 제품의 가격조절기능과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한 시장판매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업체간의 정보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의류봉제, 유통, 무역, 디자인 등의 섬유패션 관련 산업 전 분야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인력, 정보 등 모든 경영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과의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 해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중소기업 또한 자사의 이익과 성과를 추구하여 시장의 건전한 상 관행과 질서를 쉽게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일부 기업들이 자행하는 덤핑은 관련업에 종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체차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상 관행과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규제 상으로 볼 때 외국에서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4.5. 생산방식 및 생산구조의 유연성 제고

세계시장에서의 섬유패션제품수요의 특징은 고급화, 다양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품종 소량생산체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터에 의하여 통제된 자동화 설비의 구축, 주문과 생산의 자동화 유도 등을 통하여 생산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라인에서의 공정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섬유패션분야의 선진국인 이태리 섬유산업의 경우, 원사에서 섬유패션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기업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기술, 디자인개발 및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 선두 그룹이 존재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지역산업 집적화를 이루어 산업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섬유산업의 경우에도 동일지역 내 유사기업간의 신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집적시설을 통하여 차별화 및 분업화된 유연한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6. 기술개발 및 정보화의 추진 등의 정부의 지원정책의 확대

우리나라의 섬유수출은 대개 물량위주, 중저가품의 수출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인프라의 지원 및 확충은 섬유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부 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ERP업무 비용절감을 위한 업종별 표준모델(Template) 및 업무프로세스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업종별 B2B사업 및 중소기업대상 웹기반 커뮤니티사업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중소섬유업체 전산표준모델을 공급하기 위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S)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섬유산업정보화 추진 표준매뉴얼 개발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지역의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전산화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저비용 개방형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IT기술의 접목과 더불어 ERP구축을 통하여 재고감소, 시간절감, 인력의 효율성 증대, 합리적 생산 및 판매, 자금관리, 물류비용 절감, 회계결산시스템의 신속 및 정확, 매출향상 등의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실태자료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유기업의 정보화기반시스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1;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01).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국의 ECRC를 통한 중소기업 실무자의 IT교육, 병역특례제도 등을 통한 IT인력의 확보 원활화, 산학연을 연계한 대학 전문인력의 활용 등이 요구된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지난 1990년대 초에 이미 설치한 Euro Info Center(EIC)를 기초로 하여 유럽기업간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e-commerce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싱가포르

또한 2001년부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육성을 위한 인식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는 「Jumpstar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2003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1/3을 연결하는 「Jumpstart e-Retail」을 실시할 예정이다(싱가포르 생산표준청, 2002).

Leit와 Osorio(2001)에 의하면 포르투갈의 섬유산업관련 중소기업 역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비자들과 상호반응을 주고받기도 하고, 인터넷 등의 관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원료공급자에서부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포르투갈 브랜드의 강화, 전문화되고 혁신화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특별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차별화 소재나 기능성 위주의 수출상품 구조의 개선, SCM의 구축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현지판매법인, 의류메이커와의 직거래 시스템을 지원보조하고 업계가 추진하도록 보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4.7. 새로운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규제대처

신 무역라운드의 채택으로 인하여 각 국은 환경, 노동, 기술 등 제 분야에 대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특별히 섬유산업은 환경규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지난 1992년 3월 유럽(EU)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유럽의 환경마크인 에코라벨(Eco-Label)은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별히 섬유제품과 관련된 에코라벨중에서 1993년에 제정된 'Oeko-Tex-standard100' 인증마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럽의 13개 Oeko-Tea 회원기관에서 검사 및 인증을 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사, 봉사, 직물, 섬유제품 액세서리 등 100여개 제품에 걸쳐 약 80여개 업체에서 이 환경마크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는 국내섬유산업에서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4.8. 품질, 유통·홍보 전략적 측면

마케팅과 더불어 유통 단계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는 것이 PR(Public Relations)이다. 오늘날 조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그 환경의 급속한 변화, 조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소비자운동 등 많은 요인들에 직면하고 적응해야 하며 그 요인들을 극복해내야 한다.

이와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정치 경제환경에서 조직은 늘 환경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 작업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조직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서 PR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섬유패션산업에 있어서의 PR의 역할은 다방면으로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PR은 상이한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등을 함으로서 양쪽의 가치를 높여준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구매인과 관련 산업종사자를 연결하는 것, 외부문화를 패션업계 안으로 전달해 주는 것, 개별 회사의 성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한 후 각기 나름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것 등을 대략적인 업무로 본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디자이너의 패션쇼, 뉴스를 전달하는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Opinion Leader 또는 스타 등과 인맥을 맺는 역할,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PR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이런 움직임으로 인하여 브랜드 또는 제품의 인지도 향상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에 이태리 섬유·패션업체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4.9. 법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제조물 책임(PL)법의 시행에 따라 섬유업체들도 철저한 준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여야 한다. 섬유업체의 경우 PL법에서 원사와 직물 등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은 수개월 전부터 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으나 중소 섬유업체들은 법 내용조차 모를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소비자가 접하는 것은 완제품이지만 중간재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업체들도 사전에 보험가입, 전담반의 구성 등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준비하고 정비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대한 정부, 관련조합 등의 유관기관 및 업계차원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결 론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섬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환율의 변동, 미국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WTO섬유협정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섬유산업구조의 자율조정, 약소국에 대한 특별대우문제 설정, 수량품목의 GATT로의 복귀, 원산지규정, 우회덤핑 문제의 관계설정, 새로운 쿼터의 도입금지, 과도적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금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또한 세계 각국은 친환경 섬유 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는 추세이며 신용해법 섬유의

개발을 통하여 생산과정 중에 폐기물을 유발하지 않고 유독기체를 방출하지 않음과 동시에 탄소분자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섬유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섬유업계에서는 21세기형 친환경섬유의 개발과 새롭게 변화되는 섬유산업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도 노동라운드나 환경라운드의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완전히 철폐되는 섬유쿼터로 인하여 경쟁은 가열되나 품목, 국가에 따라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향후 세계섬유시장의 변화 및 추이사향, 중소기업중심의 섬유업계 역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 하에서 섬유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섬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업경영 및 규모의 영세성, 제품경쟁력의 취약, 취약한 재무구조와 만성적인 자금난, 생산기술의 후진성, 설비의 과잉 및 노후화, 정보화시대의 대응능력 부족,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적 경제 환경 추세에 맞추어 섬유업체들은 정부, 협회 등과 같은 유관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규제 등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반덤핑규제, MFA의 철폐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공용상품개발 여건의 확대, 경영안정 정책제고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의 마케팅지원제도 및 공정경쟁관행의 정착, 생산방식의 유연성 제고, 기술개발 및 정보화의 추진, 환경 및 규제에 대처할 수 능력제고, 유통·홍보 전략의 제고, 관련 국내·외 법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 통상정책의 개선 및 지원, 경제협력의 모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국제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대외적인 신임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나름대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건실하고 강한 기업들이 형성되어 고부가가치의 창출, 구조조정을 통한 탈공업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선숙 외 2인 (1999) "독일의 중소기업정책: 독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도". 미크로, 서울.
- 김희석 외 (2000) "밀라노프로젝트 개별사업의 평가 및 조정방안". pp.17-18.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2001) "지역 섬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대만중소기업청 (2001)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20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주요국의 중소기업 국제화전략". 동공사, 서울.
- 성광원 (1996) "중소기업론". 행법사, 서울.

최용호 (2001)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활성화전략(대구·경북의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최용호 (2001) “한국·대만 양국의 중소기업발전과 경제정책”. 제19차 한·중학술회의 발표논문.

통계청 (1987, 1989, 1992, 1994, 1996, 1998)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중소기업학회 (2000) “21C중소기업의 진로”. 동학회, 서울.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994) “대구·경북 중소기업섬유업체 생산기술 실태조사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01)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전략”.

한국섬유개발연구원 (2001) “섬유업체 정보화구축 지침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센터, 인터패션플래닝(주) (2001) “3S Project”.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1) “섬유산업 SCM(QR) 추진현황 및 과제”.

Ann Hodgkinson (2000)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Asian Small and Medium Firm. Economic Working Papers, University of Wollong, Australia, pp.1-20.

Francesca Pissarides, Miroslav Singer and Jan Svejnar (2000)

Objectives and Constraints of Entrepreneurs: Evidence from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Russia and Bulgaria. William Davison Institute Working Paper, No346, University of Michigan Business School, pp.1-30.

<http://www.textile.or.kr>

Jo Leit and Carlos Osorio (2001) Digital Challenges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the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in Portugal. Economics Working Papers, WUSTL, pp.1-28.

Kankesu Jayanthakumaran (2000) Trade policy Reform and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Industry: Australia 1993-97. Economic Papers No.185, ANU, Canberra, p.16.

Linsu Kim and Jeffry B. Nugent (1994) The Republic of Korea's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and Their Support Systems,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Division.

Motoshige Itoh and Shujiro Urata (1994)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 Support Policies in Japan,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Division.



김문영(Mun Young Kim)
 이태리 Domus Academy 졸업
 현재 : 계명대학교 패션학부 패션정보기획전공 전임강사, 계명대학교 FISEP 전문인력양성 부장
 Tel: +82-53-580-6242
 Fax: +82-53-580-6245
 E-mail: munyoung@kmu.ac.kr



임흥식(Heoung Shick Lim)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 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FISEP 전임연구원
 Tel: +82-53-580-6244
 Fax: +82-53-580-6249
 E-mail: james@kmu.ac.kr